

Weekly Brief
R&I trends in **Europe**

KERC R&I News

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

2024.07.24.

Content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재선 성공 ... EU 연구 지출 확대 약속(7.18)
- ② 싱가포르 Horizon 준회원국 민주주의 기준 충족 여부 논란(7.18)
- ③ 유럽단일연구공간혁신위원회(ERAC) 본회의 개최 결과(6.26)
- ④ 집행위, 유럽 학생증 이니셔티브(ESCI) 로드맵 발표(7.12)
- ⑤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ITRE) 위원회 선출 결과(7.23)
- ⑥ OECD, 첨단 AI 개발에 관한 G7 행동강령 파일럿 모니터링 실시(7.22)
- ⑦ 세르비아-EU, 원자재,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관한 MoU 체결(7.19)
- ⑧ 핵융합산업협회(FIA) 보고서, "핵융합 기업에 대한 투자 71억 달러로 증가"(7.23)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집행위, Horizon Europe 감사 가이드 발표(7.15)
- ② 유럽연구위원회(ERC) 최대 수혜자는 미국 기업 - 연구결과(7.23)
- ③ 유럽의회조사처(EPRS), EU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연구혁신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 발간(7.17)
- ④ 인도-EU, 배터리 재활용 기술 매치메이킹 행사에서 6개 기업 선정(7.15)
- ⑤ (SB펀딩레이더) 수자원 및 해양 보호 관련 주요 공고(7.23)
- ⑥ EIC Accelerator, 68개 딥테크 기업에 4억 1,100만 유로(7.15)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태양계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우주 먼지 분석 기술 개발
- ② (성공사례) 유럽 농업 가치사슬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 프레임워크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재선 성공 ... EU 연구 지출 확대 약속(7.18)

- 집행위원장으로 재선된 폰테어라이엔은 새 임기 동안 EU 연구 지출을 늘리고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확장할 것을 약속
 - 폰테어라이엔은 유럽의회 투표 이전에 향후 5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혁신을 유럽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더하여, 18일 오전 발간된 정책지침서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연구 지출을 늘리고 ERC와 EIC를 확장하겠다고 약속함
- ※ Horizon Europe 필라1에 속한 ERC는 기초연구에 16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며, 필라3에 속한 EIC는 보조금과 지분투자를 통해 연구자와 혁신가를 지원
- 또한, 폰테어라이엔은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개시하고, 내년에 유럽 생명공학법을 제안하고, 대학 동맹을 강화하고자 함
 - 호라이즌 유럽 공동 보고관인 유럽의원 Ehler는 ERC와 EIC에 대한 지원과 R&I 투자 증대 공약은 FP10에 좋은 징조라고 언급하며, 폰테어라이엔의 재선이 유럽 연구계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함
 - Ehler는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폰테어라이엔의 공약은 FP10이 Horizon Europe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믿는다”고 언급
- 18일 오전 투표를 앞두고 폰테어라이엔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번영’과 ‘경쟁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 그 전략의 핵심은 유럽 경쟁력 기금을 EU의 차기 장기 예산에 포함시켜 AI, 우주, 청정기술, 생명공학 등 전략적 기술에 투자하는 것에 있음
 - 이는 회원국들이 새로운 자금 제공을 거부하기 전인 지난해 폰테어라이엔이 처음 제안한 ‘EU 주권 기금’과 유사한 개념
 - 이러한 기금은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폰테어라이엔이 더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를 지원할 수 있음

- 2028~2034 EU 예산을 강화할 경우 이러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폰데어라이엔에 따르면 유럽단일시장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에서 산업, 디지털에서 전략 기술에 이르기까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늘리고 사람과 스킬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함**
 - 폰데어라이엔은 부담스러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없애고 기업에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중소기업 및 경쟁력 점검(Check)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이 전략은 유럽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중심에 둬
- **탈탄소화 및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새로운 ‘청정산업계획’도 임기 시작 100일 이내에 추진될 예정**
 - 폰데어라이엔은 이 계획이 인프라 및 산업, 특히 에너지 집약적 부문에 대한 투자 채널로 지정되었다고 밝힘
 - “이는 청정 철강부터 청정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두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획, 입찰 및 허가 속도를 높이고, EU가 ‘더러운’ 러시아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
 - 이에 2024년까지 탄소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 이니셔티브는 그린딜에 대한 새로운 공약을 의미하지만, 그 초점은 이행과 투자로 전환됨
- **정책지침서에서 폰데어라이엔은 특히 슈퍼컴퓨팅, 반도체, 사물인터넷, 유전체학, 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약속**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침서는 규제에서 혁신으로의 전환을 암시,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AI의 산업 및 공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 산업계 및 시민 사회와 함께 ‘AI 적용 전략’을 개발할 계획
 - 더불어 집행위원장은 최근 집행위 과학 자문단의 지지를 받은 개념인 ‘CERN for AI’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자원을 모으기 위해 AI 연구 이사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

- 연설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지와 유럽의 안보 및 국방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부분이었음
 - 집행위원장은 “이제 진정한 국방 연합을 건설할 때”라고 말하며 “완전한 방공 시스템”과 같은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촉구
 - 더 나아가 정책지침서에서는 국방 담당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설정하고, 투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임기 후 첫 100일 동안 유럽 국방의 미래에 대한 백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
 - 지침서에서 집행위원장은 공동 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방위 산업프로그램과 국경 간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럽방위기금(EDF)를 강화하겠다고 약속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europe/von-der-leyen-vows-increase-eu-research-spending-new-term>>

2 싱가포르 Horizon 준회원국 민주주의 기준 충족 여부 논란(7.18)

- 싱가포르는 지난 4월 호라이즌 유럽 가입 탐색 회담을 개시,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다가서고 있음
 - 이달 초 경쟁 담당 위원인 Vestager는 추가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유럽 이사회에 전면적인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
 - 그러나 Horizon Europe에 가입하려면 유럽 역외 국가들은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민주적 제도의 지원을 받는 인권 존중’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가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권위주의적인 싱가포르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불분명
- 집행위원회는 싱가포르가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에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인권단체는 변호 불가능이라고 주장, Ehler 유럽의원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
 - Ehler 유럽의원과 인권단체는 어떻게 싱가포르가 Horizon Europe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민주주의와 인권 정책을 제공하는지 설명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촉구

-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지난해 싱가포르의 마약 밀매자 처형, 언론의 자유 취약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정부 통제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 이주 노동자의 권리도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
 - 싱가포르의 경우 다당제 선거가 있음에도 인민행동당(PAP)이 1965년 독립 이후 경제 성장, 좋은 공공 서비스 및 주택 등의 기록과 함께 인기를 유지하며 집권해오고 있음
 - 그러나 PAP는 독립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형사 고발, 언론에 대한 경제력, 법원에 대한 통제,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제한권 법률 등을 통해 여당의 권력을 확고히 해오고 있음
- 집행위원회 준회원국 가입 수석 협상가인 Ratso는 EEAS와 함께 실시한 싱가포르 내부 보고서에서 Horizon Europe 민주주의 및 인권 요구 사항과 ‘어떠한 충돌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힘
 -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진행 중인 협상을 고려할 때 이 평가가 너무 민감하다고 주장하며 이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Ratso는 “싱가포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싱가포르가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확실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덧붙임
- 한편, Horizon Europe 보고관인 Ehler 유럽의원은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싱가포르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를 원함
 - “싱가포르의 경우 민주적 성격에 대한 의문이 합법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가 우리의 민주적 규범을 준수하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행위원회에 있다. 단순히 집행위원회가 규정을 준수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함
 - Ehler는 과거에 유럽의회에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충분한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질랜드나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의 가입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의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반복

○ **인권단체들은 집행위원회에 입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

- 국제인권영맹 아시아 사무국장은 “싱가포르 정부가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심각한 인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EU가 방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싱가포르가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EU의 모든 평가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관할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적절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
- 미국 싱크탱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싱가포르가 “일부 정치적 다원주의를 허용하지만, 야당의 성장을 제약하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
- 국제엠네스티는 집행위원회가 “싱가포르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입장을 표명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외에도 싱가포르 연구자들이 완전한 학문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2021년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 학자 중 3분의 1은 자신이나 다른 동료에게 연구결과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함
- 그 근거로 행정적 정당성을 내세웠으나, 대다수의 경우 사실상 정치적 한계선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음
- 한 응답자는 “해당 연구결과가 주 정부를 너무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묘사한다면 정부 자금 지원 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함
- 더불어 약 3분의 1은 강의 시간에 ‘민감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함
- 싱가포르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와 같은 국가와 함께 학문의 자유 지수에서 하위 4분위에 속해있으며, 하위 3분위인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EU 회원국 보다 상당히 낮은 위치에 속함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원 Ian Chong은 “Horizon Europe 프로젝트에 싱가포르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싱가포르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전혀 또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함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europe/calls-evidence-singapore-meets-horizon-democracy-criteria>>

3 유럽단일연구공간혁신위원회(ERAC) 본회의 개최 결과(6.26)

- 지난 6월 26일 유럽단일연구공간 및 혁신 위원회(ERAC)는 당시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를 개최, 연구혁신 관련 주요 의제에 관해 토론
 - ERAC는 집행위원회가 준비한 배경문서에 기반하여 유럽의 경쟁력을 위한 연구혁신에 관해 토론, 주로 3가지 주제에 중점을 둠
 - (1) 더 강력한 민간 R&D 투자를 지원하고 더 높은 국가 공공 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 (2) EU 수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5번째 자유를 충족하기 위한 ERA 정책 어젠다 및 신유럽혁신어젠다(NEIA)의 역할, (3) 경쟁력과 5번째 자유를 향한 프로세스에서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 또한, ERAC는 ERA 정책 어젠다(EPA) 2025-2027와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을 위한 지침에 관한 ERAC 의견(Opinion)을 채택
 - 마지막으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연구 인프라를 논의, 이와 관련된 ERA 의견 준비가 논의됨
 - 한편, 집행위원회는 ERAC 대표단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 조치를 소개
- 현재 및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및 우선순위
 - 벨기에 의장국은 R&I 관련 활동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 이에는 지식 가치화에 관한 이사회 결론, Horizon 2020 사후 평가에 관한 이사회 결론, 연구 보안에 관한 이사회 권고, AI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액세스 촉진을 위한 EuroHPC 규정 개정, 첨단소재에 관한 장관급 정책 회의 등이 있음
 - 차기 의장국인 헝가리는 R&I 프로그램과 계획된 우선순위를 발표, 이에는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사회 결론,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분열 극복, 첨단소재에 관한 집행위원회 통신문에 대한 이사회 결론, BIOEAST 파트너십에 관한 이사회 결론, 호라이즌 유럽 중간 평가에 관한 이사회 결론, ERA 정책 어젠다 2025-2027에 관한 이사회 권고, EURATOM 프로그램 2025-2027 연장 승인, 유럽연구인프라컨소시엄(ERIC) 규정 개정 등이 있음
- 차기 본회의는 10월 24일~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예정

<출처 :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1890-2024-INIT/en/pdf>>

4 집행위, 유럽 학생증 이니셔티브(ESCI) 로드맵 발표(7.12)

- 집행위원회는 유럽 학생증 이니셔티브(European Student Card Initiative, ESCI)의 향후 2년 동안의 로드맵을 발표
 - ESCI는 Erasmus+ 프로그램 내에서 모빌리티를 이행하고 유럽 단일 교육공간(EEA)에서 온라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해외 서비스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디지털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4년 말까지는 격차 해소 및 최적화에 초점을 맞춤
 -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최신 버전의 기관간 디지털 협약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디지털 학습 교류 협정을 맺지 않은 기관을 지원하는 등 EWP (Erasmus Without Paper) 네트워크의 기능을 최적화할 것
 - 유럽 학생증 라우터(ESC-R)를 집행위의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이동하여, 가상 ESCI의 개발과 광범위한 학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할 것
 - 또한, 집행위는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ESCI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
- 2025년에는 현재 디지털 프로세스의 단순화 및 추가 프로세스 개발에 중점을 둠
 - EWP 거버넌스 및 EWP 챔피언*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현재 디지털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가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됨
- * Erasmus+ 프로그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유럽 전역의 고등교육기관
 - '25년 1~6월 기간 동안은 현재의 기술적인 복잡성을 해결하여 간소화된 학습 협약과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의 준비를 가능하게 하며, 다자간 디지털 서명 프로세스, Erasmus+ 앱 내 가상 학생증을 제공할 예정
 - 7~12월 동안은 간소화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테스트 및 업그레이드 지원, 사용자 교육, 디지털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출시 계획을 제공할 것
- 이러한 개발은 행정을 간소화하고, 모빌리티 프로그램에 차기 Erasmus+ 목표인 디지털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데 필수적

<출처 : <https://erasmus-plus.ec.europa.eu/news/european-student-card-initiative-commission-publishes-roadmap-for-next-two-years>>

5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ITRE) 위원회 선출 결과(7.23)

- 지난 7월 23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Committees) 및 소위원회 구성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
 - 구성 회의에서 각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2년 반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부서를 선출
- 산업, 연구 및 에너지(ITRE) 위원회 의장으로는 Borys Budka (EPP, 폴란드)가 선출되었으며, ITRE 위원회는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제1부의장으로는 Tsvetelina Penkova(S&D, 불가리아), 제2부의장으로는 Elena Donazzan(ECR, 이탈리아), 제3부의장으로는 Giorgio Gori(S&D, 이탈리아), 제4부의장으로는 Yvan Verougstraete(Renew, 벨기에)가 선출
-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정기회의를 시작할 예정
 - ITRE 위원회의 현재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에 대한 EU의 일반 예산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수립 제안에 대한 국방산업우주총국(DG DEFIS) 총국장 Timo Pesonen의 프레젠테이션 등이 있음

<출처 : <https://era.gv.at/news-items/borys-budka-elected-as-itre-chair/>>

6 OECD, 첨단 AI 개발에 관한 G7 행동강령 파일럿 모니터링 실시(7.22)

- OECD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강령의 적용을 모니터링하는 파일럿 단계를 발표
 - OECD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이 행동강령의 조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보고 프레임워크를 테스트
 - 동 이니셔티브는 AI 시스템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배포, 사용을 촉진하려는 G7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함
- 파일럿 단계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에 중요한 단계이며, 최종 보고 프레임워크는 첨단 AI 시스템의 위험을 완화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촉진할 것
 - '23년 시작된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

- '24년 9월 6일까지 이용 가능한 보고 프레임워크의 파일럿 단계는 G7 행동강령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
- 보고 프레임워크의 초안은 G7 국가의 주요 AI 개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안되었으며, 행동강령의 11가지 행동에 기반한 질문을 포함
- 첨단 AI를 개발하는 기관은 파일럿 단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제공된 의견은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말에 최종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함
-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고 여러 관할에서 운영되는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

<출처 :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4/07/oecd-launches-pilot-to-monitor-application>>

7 세르비아-EU, 원자재,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관한 MoU 체결(7.19)

- EU와 세르비아는 지속 가능한 원자재, 배터리 가치사슬 및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 동 파트너십은 지역 사회의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전기자동차 가치사슬을 따라 새로운 지역 산업과 고품질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세르비아의 EU 단일시장 통합을 촉진하고, EU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수렴을 촉진
 - 파트너십은 EU 기관 및 산업계, 기업 협회, 사회 파트너, 시민 사회 대표, 회원국 및 세르비아의 관련 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 간의 강력한 민관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 EU 그린딜 및 기관간 관계를 담당하는 부집행위원장 Šefčovič과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장관 Đedović Handanović은 핵심원자재 관련 고위급 정상회담 후 MoU에 서명
- MoU는 다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확립
 - (원자재, 배터리, EV 가치사슬 개발 강화) EV 산업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을 장려할 것

- (연구혁신 협력) 양측은 Horizon Europe 등을 통한 기존의 협력 분야를 매핑하고, 2차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탐사, 추출, 처리, 재활용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것
 - (높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표준 및 관행 적용) 배터리 가치사슬에 대한 실사와 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관련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의와 정보 교환을 촉진할 것
 - (금융 및 투자 동원) Invest EU, 서부 발칸반도 투자 프레임워크, 세르비아의 단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유럽 원자재 동맹 및 유럽 배터리 동맹 등의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
 - (원자재 및 배터리 부문의 고품질 일자리를 위한 기술 개발) 세르비아의 전용 프로그램 및 인턴십 개발을 포함하여 세르비아 기관의 유럽 배터리 및 향후 원자재 아카데미에 대한 참여가 포함
- 양측은 MoU 서명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로드맵을 6개월 이내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

※ 집행위는 핵심원자재에 대한 실행계획 및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21년에 캐나다, 우크라이나, '22년에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23년에 아르헨티나, 칠레,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그린란드, '24년에 르완다,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호주와 파트너십 체결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922>

8 FIA 보고서, “핵융합 기업에 대한 투자 71억 달러로 증가” (7.23)

- FIA(Fusion Industry Association)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핵융합 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작년 62억 달러에서 71억 달러로 증가
 -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공공 투자의 증가가 2억 7천만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로 증가, 1년만에 50% 이상이 증가한 것
 - 동 보고서는 “핵융합 실험 발전소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핵융합이 새로운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표적으로 ITER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자로 개발이 지연되는 등 차질 발생
 - 핵융합은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성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며,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시
 - 그러나, 팬데믹, 부품 결함, 방사선 문제 등으로 실험용 원자로 개발이 지연됨
 - ITER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중수소-삼중수소 연료를 포함하는 핵융합 반응은 2035년에서 2039년으로 연기됨
- 새로운 핵융합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선두를 달림
 - 현재 45개 회사가 자체 원자로를 개발 중이고, 그중 미국이 25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음
 - 미국 회사들이 5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한 반면, 유럽 회사들은 2억유로만 투자
 - 한편, FIA의 CEO인 Holland는 유럽의 핵융합 생태계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이 핵융합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 언급
- FIA 보고서는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
 - FIA 보고서는 핵융합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로는 핵융합 에너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
 - 주요 장애물로는 전력 효율성, 펄스 지속 시간, 삼중수소 자급률 등이 있음
 - Holland는 각 회사가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s)를 건설하고 상업적인 운영을 시작하려면 약 1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45개 기업 중 몇 개 회사에서 이러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을지는 추정할 수 없음
- 또한, 공공 자금 지원의 필요성도 지적하였으며, 자금을 민간 기업에 할당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Holland는 EU에서 핵융합에 투자하는 자금이 기초 과학, 연구, 플라즈마 물리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전환해야 함을 언급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상업적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 가속화를 위해 '25년 예산으로 약 8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요청함
- Holland는 EU에서 ITER뿐만 아니라 상업화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개방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ITER에서도 민간 부문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했으며, 지난 5월 말 ITER과 산업계는 첫 번째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fusion-investment-grows-62b-71b-year>>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집행위, Horizon Europe 감사 가이드 발표(7.15)

- 집행위원회는 Horizon Europe 프로젝트 감사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보조금에 대한 재무 감사 가이드 ‘Indicative Audit Programme (IAP)’를 발간
 - 이 가이드는 EU 감사자를 위한 도구이지만 수혜자와 지원 사무소가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IAP는 Horizon Europe을 통해 수여된 연구 보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EU 보조금에 대한 감사 프로세스의 표준 절차와 목표를 설명
 - 이 가이드는 EU 감사자를 위한 도구이지만, 현장 감사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재무제표 인증서 준비를 위한 지침이기도 해 수혜자와 EU 보조금 서류 처리를 돕는 지원 사무소 등에게도 유용할 수 있음

<출처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indicative-audit-programme_en.pdf>

② 유럽연구위원회(ERC) 최대 수혜자는 미국 기업 - 연구결과(7.23)

-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유럽연구위원회(ERC)의 가장 큰 상업적 수혜자로, 유럽 기업이나 대학보다 ERC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제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연구인 ‘ERC science and invention: Does ERC break free from the EU Paradox?’는 유럽 기업과 대학이 연구실에서 ERC 혁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이 결과는 유럽이 기초 과학은 훌륭하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실제 활용이 약하다는 ‘유럽 역설’로 인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
- 미국과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ERC 연구를 인용한 10,000개의 혁신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이중 26%를 담당한 반면, EU 기업은 16%를 차지

- 게다가 특허를 취득한 미국 기업의 37%는 스타트업이었으며, EU의 경우 21%에 그침
- 대학의 경우 EU는 16%, 미국의 경우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 저자 Nagar는 ERC 보조금 수혜자들이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박사과정생 등을 통해 미국과 어떤 종류의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대서양을 건너 흐르는 것이 쉽다는 점이 주 이유일 것으로 추측
 - ERC 자체 내부 분석에서도 미국 기업이 연구를 통해 이익을 얻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RC 대변인은 이 연구에 관해 그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말함
- 한편, 특허에 인용된 ERC 연구가 다른 유사 연구보다 더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음
 - Nagar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ERC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시선을 끌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
 - ERC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허는 비교가능한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인용을 받았으며, 이는 ERC 과학이 유사한 유럽 과학 연구에 비해 고품질 발명에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us-companies-are-biggest-beneficiaries-european-research-council>>

3 유럽의회조사처(EPRS), EU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연구혁신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 발간(7.17)

- 유럽의회조사처는 핵심원자재(CRM)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있어 연구혁신의 역할을 분석
 - 동 보고서는 EU의 원자재 공급 확보에 있어 연구혁신 및 협력의 역할을 검토하고, 가치사슬에 따른 연구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허 활동과 국제협력을 분석
 - EU 기관 및 연구혁신 역량, 국제협력, 합법성 및 규제에 대한 11가지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각 차원(비용, 혜택,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24/762848/EPRS_STU\(2024\)762848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24/762848/EPRS_STU(2024)762848_EN.pdf)>

4 인도-EU, 배터리 재활용 기술 매치메이킹 행사에서 6개 기업 선정(7.15)

- EU-인도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주최한 배터리 재활용 기술 매치메이킹 행사에서 EU와 인도의 각 3개 스타트업이 우승자로 선정됨
 - 선정된 스타트업은 EU와 인도에서 시장 탐방 기회를 제공받으나 재정 지원은 없음
- EU에서 인도를 방문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음
 - Ecomet Refining(이탈리아): 전자 폐기물, 리튬 이온 배터리, 촉매, 태양광 패널에서 귀금속 및 주요 원재료 회수 및 정제
 - Eneris(폴란드): 사용 종료 배터리 팩 및 생산 폐기물의 기계적 처리
 - Tozero(독일): 배터리 폐기물에서 주요 재료 회수 및 배터리 공급망에 재통합
 - Primobius(독일): 다양한 화학물질, 형식, 유형의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제공
- 인도에서 EU를 방문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음
 - BatX Energies: 고급 Hydro+Electro 기술을 사용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 Evergreen Lithium Recycling Privte Limited: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주요 금속 추출
 - LW3 Pvt. Ltd: EV 배터리 패스포트 서비스 제공
 - Lohum: 인도 최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소재 생산
- 동 행사는 국경을 넘는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현지 시장 동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출처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six-companies-selected>>

5 (SB편딩레이더) 수자원 및 해양 보호 관련 주요 공고(7.23)

- '21년 EU는 Horizon Europe의 5대 미션 중 하나로 해양 및 수자원 복원 관련 미션 'Mission Starfish 2030'을 채택
 - 2000년 EU는 수자원 프레임워크 지침을 채택하여 모든 수역이 "좋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08년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은 2020년까지 "좋은 환경 상태의" 해양 수역 도달을 위한 회원국의 조치를 촉진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첫 번째 어업 관련 EU 자금 지원은 1993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은 '21~'27년 기간 동안 6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보유
- 현재 수자원 및 해양 보호 관련 주요 공고는 다음과 같음

호라이즌 유럽 ([HORIZON-MISS-2024-OCEAN-01-05](#))

- 바다와 내륙 수로의 복원, 보호, 보존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
- 공고에 배정된 예산은 300만 유로이며, 마감일은 9월 18일
- 동 공고는 다음 두 가지 자금 지원 기회를 포함: [다뉴브 강 유역 등대](#), [대서양 및 북극 해역, 지중해, 발트해, 북해 유역 등대](#)

호라이즌 유럽 ([HORIZON-MISS-2024-OCEAN-02-02](#))

- 해양과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EU 미션을 달성에 기여하는 섬, 지역 및 해안 도시 연합을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
- 공고에 배정된 예산은 400만 유로이며, 마감일은 9월 18일

호라이즌 유럽 ([HORIZON-MISS-2024-OCEAN-02-01](#))

- 또 다른 호라이즌 유럽 공고는 2030년까지 바다와 물을 복원하는 미션을 위한 커뮤니티 주도 행동에 자금을 제공
- 공고에 배정된 예산은 5,000만 유로이고, 마감일은 9월 18일

Blue Action Fund ([Eastern Tropical Pacific Region](#))

- 동부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고 해안 어촌 사회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 지원
- 2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의 보조금을 할당, 마감일은 8월 15일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ValMAS](#))

- 해상 풍력 발전소 등 해양 인공 구조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사결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가 개시될 예정
- 동 공모는 영국 연구기관이 신청 가능
- 최대 465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는 9월 5일-10월 31일 동안 진행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funding-radar-weeks-round-calls-research-water-and-maritime-protection>>

⑥ EIC Accelerator, 68개 딥테크 기업에 4억 1,100만 유로(7.15)

- 유럽혁신의회(EIC)는 지난 3월 마감된 EIC Accelerator 공모에서 68개 기업을 선정해 보조금과 지분 투자가 결합된 혼합 형태의 자금을 지원
 - 총 969개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347개가 인터뷰를 거쳐 최종 68개 기업이 선정됨
 - 선정된 기업에 총 약 4억 1,1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이 중 최대 1억 6,500만 유로는 보조금, 약 2억 4,500만 유로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지원
 - 선정된 기업 중 거의 모든 기업(96%)이 보조금과 지분 투자의 혼합 금융 옵션을 선택
 - 지분 투자는 EIC Fund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해 평균적으로 EIC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유치
 - 선정된 기업들은 17개국에 걸쳐 있으며, 그중 5개는 참여확대국(widening countries)에 기반을 둠
 - 선정된 기업의 21%는 여성 리더가 이끌고 있음
- 선정된 혁신 기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Latitude(프랑스): 세계적인 마이크로 발사체 개발 및 운영
 - VAXDYN(스페인): 항생제 내성 감염을 타겟으로 하는 백신 플랫폼 개발
 - Mifundo(에스토니아): 국경을 넘는 AI 및 데이터 플랫폼 개발

<출처: https://eic.ec.europa.eu/news/eic-accelerator-68-deep-tech-start-ups-latest-funding-round-2024-07-15_en>

3. EU 주요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태양계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우주 먼지 분석 기술 개발

- EU 연구자들은 소행성, 혜성, 유성 등 우리 우주의 과거의 잔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
 - 우리의 태양 주위를 도는 소행성, 혜성, 유성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남겨진 얼음, 금속, 암석 덩어리로 직경이 몇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러한 물체는 우주의 과거에 대한 화석 기록을 나타냄
 - 이러한 정보는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는 태양계에 있는 이러한 작은 천체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체들이 주로 너무 어둡고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Universite Grenoble Alpes의 SOLARYS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Pierre Beck은 설명
 -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체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운석과 먼지의 형태로 매일 지구에 떨어지는 외계물질의 정확한 기원을 항상 확신할 수는 없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지원을 받는 SOLARYS 프로젝트는 첨단 적외선 분광 기술을 선구적으로 사용
 - 운석 조각이 적외선을 어떻게 흡수하거나 반사하는지를 분석하면 재료를 손상하지 않고 샘플에 존재하는 광물과 운석의 역사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음
 - 분석은 소행성의 나이와 그것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연구팀은 운석 샘플과 외계 먼지 입자의 구성을 매우 작은 규모로 특성화할 수 있었음
 - “우리가 사용한 장비는 이전 세대 장비보다 10배 더 미세한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샘플이 어떻게 적외선을 흡수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 이 접근법을 통해 연구팀은 샘플에서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유기 화합물의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된 작은 구체로 발견하는 등 광물 성분과 탄화수소와 같은 유기 성분을 식별할 수 있었음
 - “또한 이 물체들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황화물이나 철로 만들어진 매우 미세한 불투명 입자의 존재로 인한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일부 샘플의 표면에는 암모늄염 형태의 매우 특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염분은 지구 표면에서는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매우 차갑고 대기가 없는 물체에는 생성될 수 있다. 이 염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핵심 요소인 지구의 질소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Beck과 연구팀은 새로운 분석 기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이러한 샘플의 구성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운석과 먼지의 외계 근원에 대하여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고 믿음
- 다음 단계에서는 소행성, 유성, 혜성에 대한 기존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샘플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분자 특성을 찾는 것이 포함
 - 모체 탐색이 성공하면 그러한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값비싼 탐사 우주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음
 -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만 현재 약 130만 개의 알려진 소행성과 3,800개 이상의 알려진 혜성이 있으므로 이는 큰 도전이 될 것
 -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 현재는 화성 샘플에서 유기물을 검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외선 분광 기술이 여기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토양 샘플을 관찰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 이는 유성과 소행성의 형성 과정, 그리고 지구와 같은 지구형 행성의 발달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궁극적으로 SOLARYS 프로젝트를 통해 개척된 새로운 분석 기법이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더 나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램

SOLARYS 프로젝트

- 기간 : 2018.04.01.~2023.09.30.
- 예산 : 약 2,421,180.00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UNIVERSITE GRENOBLE ALPES (프랑스)

2 [성공사례] 유럽 농업 가치사슬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 프레임워크

- EU 지원 Ploutos 프로젝트는 가치 사슬을 따라 강력한 혁신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
 - 유럽 농업은 농민들이 비용 상승, 부채, 기후 변화, 값싼 수입품 위협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기로에 서있는 등 서로 연관된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생산자들은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 안전하고 적절한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하고 가치 사슬의 힘 불균형으로 인해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농부와 농촌 공동체의 적정 소득을 유지해야 함
 -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고립되어 있었으나, Ploutos 컨소시엄은 전체 가치사슬을 포함하며 제안된 각 접근법의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혁신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러한 추세를 깨뜨림
- Ploutos 컨소시엄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농식품 생산, 지속 가능성 및 소득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었음
 - 15만 명 이상의 농민 연합을 대표하는 Gaia Epicheirein을 대표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한 Nikos Marianos는 “Ploutos는 시스템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설명
 - 동시에 Ploutos는 농업의 미래가 기술 발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음
 - “디지털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또는 ‘디지털 농업’과 같은 라벨로 농업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집행위원회와 민간 부문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현재의 농식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술 중심적이어서 지금까지 농식품 종사자들의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 Ploutos는 지속가능한 혁신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술 중심 솔루션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및 행동 혁신과 디지털 도구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모델로의 전환을 지향

- 이 전략은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농식품 부문의 상호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Ploutos의 성공은 가치 사슬 전체의 이해관계자를 모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설계 솔루션에 다같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다중 행위자 접근법에 뿌리를 둠
 - Ploutos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가치사슬 행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 혁신의 활용을 가속화하며 농식품 부문의 이해관계자들 참여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야망은 유럽 전역에서 획기적인 잠재력을 보여준 11개의 '지속가능한 혁신 파일럿 (SIP)'에 요약되어 있음,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의 혁신 역량뿐만 아니라 포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프로젝트의 노력을 강조
 - 여기에는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의 스마트 농업 솔루션, 잉여 식량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의 FoodSHare 플랫폼, 프랑스와 그리스의 클라우드소싱 기반 소비자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
 - SIP는 경작, 원예, 다년생 식물, 가축 및 유제품 생산을 다루는 파일럿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 사슬과 해당 농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교차 부문 파일럿을 진행하는 등 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부문과 성숙도 수준을 반영
 - 여기에는 농민, 협동조합, 식품 산업 및 농업 기술 기업, 정책 입안자, 자문 서비스, 대학, 연구센터, 서비스 제공업체 및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동시에 인공위성, 드론, AI, 클라우드소싱, 시맨틱 기술과 같은 기술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고유한 혁신들의 조합을 테스트
- Ploutos는 협업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기반 혁신과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줌
 - Ploutos 프로젝트는 2023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그 결과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혁신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지원하는 Ploutos Innovation Academy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 가능성 중심의 혁신 생태계에 대한 프로젝트의 비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Ploutos 프로젝트

- 기간 : 2020.10.01. ~ 2023.09.30.
- 예산 : 약 8,508,075.08 유로 (EU 6,998,523.75 유로 지원)
- 총괄 : GAIA EPICHEIREIN ANONYMI ETAIREIA PSIFIAKON YPIRESIO (그리스)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holistic-model-help-europes-farmers>